



◆ ◆ 선택지 ◆ ◆ ◆ ◆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론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 국가 간의 관계에도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 (평화주의, 정의전쟁론, 현실주의)
2. 전쟁은 부도덕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평화주의, 정의전쟁론, 현실주의)
3. 전쟁은 도덕적 제약을 받지만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평화주의, 정의전쟁론, 현실주의)
4. 자국을 침략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평화주의, 정의전쟁론, 현실주의)
5. 전쟁에 대해서는 도덕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평화주의, 정의전쟁론, 현실주의)

긍정의 대답을 할 입장에 Y, 부정의 대답을 할 입장에 N을 표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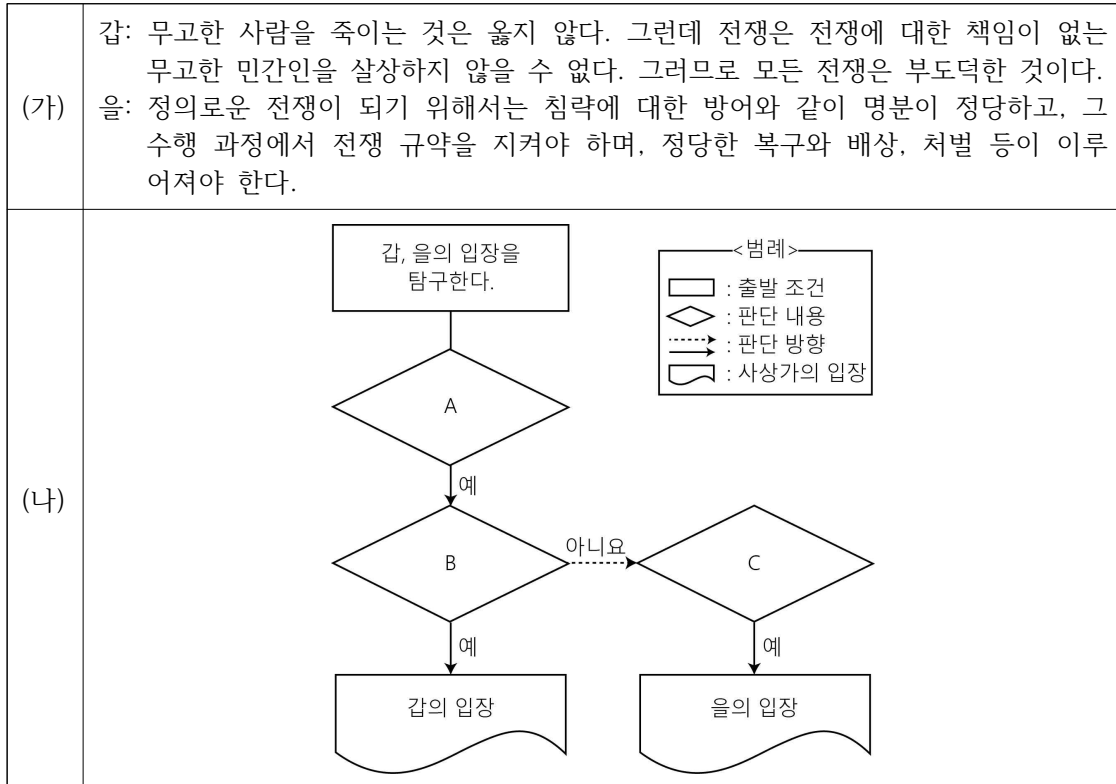
6.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상주의, 현실주의)
7.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상주의, 현실주의)
8. 국가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가? (이상주의, 현실주의)
9.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안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인가? (이상주의, 현실주의)

◆ ◆ OX 문제 ◆ ◆ ◆ ◆

10.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에 도덕적 관계가 없다고 본다.
11. 정의전쟁론에서는 전쟁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12. 왈처는 인권 문제로 인한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고 본다.
13. 현실주의는 전쟁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14. 왈처는 한 나라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고 본다.
15. 왈처는 무력 개입은 예외 없이 정당한 명분이 아니라고 본다.
16. 왈처는 정당한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도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약이 있다고 본다.
17. 칸트는 전쟁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고 영구 평화를 추구하였다.
18. 칸트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전제 정치의 척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 칸트는 공화정과 합법적 국제 관계가 서로 필수 요건이 된다고 보았다.
20. 칸트는 세계 정부가 아니라 국제 연맹을 추구하였다.
21. 칸트는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22. 현실주의는 강제력을 가진 세계 정부 수립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조한다.
23. 현실주의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강조한다.
24. 현실주의는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정책이 분쟁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25. 현실주의는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이해 부족에서 전쟁이 비롯됨을 강조한다.
26. 이상주의는 국가 간 군사 동맹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려고 한다.
27. 구성주의는 국제 관계가 문화적 속성에 기초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28. 구성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정체성은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3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전쟁은 도덕적인 판단 대상인가?
 ② B: 합법적인 선제공격은 정당한가?
 ③ B: 극심한 인권 유린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한가?
 ④ C: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은 전범으로 처벌될 수 없는가?
 ⑤ C: 전쟁 종결과 동시에 전쟁 당사국의 도덕적 책임도 종료되는가?

3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원리에 근거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들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비록 이런 상태가 이미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는 이성의 이념에서 보면 하나의 세계 왕국으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는 낫다.

- ① 세계 정부는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②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세계적 차원의 연방 국가는 국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④ 국제 사회에서도 이성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국민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정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